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박판규	학번	
이메일	Pkpark0507@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Leeds / MSc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국가) 영국
기 간	2017. 8. 30. ~ 2018. 8. 29.	**[귀국일: 2018년 8월 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DI SCHOO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교학처장 귀하

2018 년 12 월 6 일

신 청 인: 박판규 (인)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1. 초기 적응

저는 영국의 Leeds라는 도시에 위치한 University of Leeds에서 MSc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과정을 마친 박판규입니다. 리즈는 영국의 중간쯤에 위치한 West Yorkshire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80만 정도로 영국에서 3~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West Yorkshire 지역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기후도 다른 지역에 비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의 서울 보다 더 런던에 대부분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4번째 도시라고 해도 시내를 벗어나면 시골 풍경이 펼쳐지고, 한국인도 만나기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저의 경우 런던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공부했던 관계로 초기 정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리즈는 한인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 (10~15 가정 내외), 집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차 구매, 아이들 학교 정착, 은행 계좌, 휴대 전화 개통 등 초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집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의 경우는 영국 출국 전에 미리 인터넷 사이트 (www.rightmove.co.uk)를 활용하여 리즈의 부동산 업체 몇 곳에 사전에 연락해 viewing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국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푼 후 해당 부동산 업체에 다시 연락을 했을 때는 절반 이상의 집이 이미 계약이 끝난 후였고, 막상 방문한 집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약 3주간 마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3주 가량 호텔과 민박집을 전전하던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한 군데 찾을 수 있었고 (약 850 파운드/월), 학교에서도 가족 기숙사 (550 파운드/월)에 입주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고민하던 중 학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내와도 가까운 가족 기숙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기숙사 입주는 이제와 돌아보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 기숙사는 같은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서로를 잘 배려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었고, 아이들 나이도 초등학생 정도로 비슷한 가정이 많아 아이들끼리 방과 후에도 같이 어울려 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집은 전반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각종 잔고장이 잦은데 (보일러 / 세탁기/냉장고 고장 등), 기숙사별로 관리인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메일로 집의 문제에 대해 통보하면 빠르게 대응해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집을 빨리 구해야 하는 이유는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은행 계좌 개설,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는 집 주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상담 예약을 미리 잡아야 하고 (보통 1~2주 전), 상담 후에도 카드와 비밀번호 수령을 위해 집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국 계좌를 개설 후 휴대 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교 배정에도 집 근처의 학교를 시청에서 우선 배정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 주소가 있어야, 아이들의 입학 / 전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을 전전하는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지에 처음 정착할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며칠 정도는 호텔 생활을 재미있어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답답한 호텔 생활을 장기간 견디기는 힘들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집이 구해 질지 몰라 1주일 정도 단위로 숙소 예약을 할 경우 종종 숙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짐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숙소를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공부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현지에서 집을 소개해 주는 한국분이 계시다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미리 집을 구하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가족 단위로 1주일 가량을 지내려면 호텔비로만 주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입주하시는 것이 경

제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린 분들은 한 분이 먼저 외국에 나가서 집을 구한 후 가족들을 입국시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들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을 구한 후 아이들 학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영국 석사는 1년 과정인데,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허비된 상황이라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먼저, 집 근처의 학교를 여러 군데 방문해보고, 가장 아이들에게 적합한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영국은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학교를 평가하여 장단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누구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sted) 따라서 해당 학교를 방문하기 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숙지한 후 아이들의 학년에 공석이 있는지 여부와 대기해야 한다면 몇 순위가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영국은 행정 처리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중간에 담당자의 실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입학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교에서 연락이 너무 늦어 담당자와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첫째 아이만 등록이 되고 둘째는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돌림자를 쓰는 경우가 영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입학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냐며, 혼란스럽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몇 명이 입학 신청을 하는 것인지를 강조하실 필요가 있으며, 진행상황을 중간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석사 생활

저는 KDI School의 해외 대학 MOU 연계 과정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석사를 지원해 Environment and Development라는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의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각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영국의 석사과정 기본 수업 구성은 강의와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녹화된 영상을 복습하거나 교재를 읽어보는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으로서 더 큰 문제는 세미나였습니다. 일단,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3~5 개 정도의 논문을 읽어가야 하는데, 분량이 꽤 되고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 이를 소화해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접하는 과목이나 분야의 경우, 논문 하나를 읽는데 몇 시간씩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영국인과 미국인 친구에게 세미나 자료를 미리 읽어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하자, 그들도 논문에 나오는 단어가 생소하고 내용이 난해하다고 하면서 다 읽는 것이 버겁다고 하여 조금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어가지 않으면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Summary, Introduction, Conclusion 부분은 읽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1학기 중간부터는 내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도 생기고, 교수님께 질문할 거리도 생겨서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경우나 논문을 소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세미나를 시작하자 마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의 총론 정도를 말하는 것도 일종의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계속 논의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정말 한 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에서 교수님은 조용하게 앉아만 있는 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난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대학은 이론 위주의 강의 보다 세미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외국의 석박사 과정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근거로 새로운 논리나 이론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제출한 논문 작성을 위해서도 평소에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강 신청의 경우 다른 영국의 대학들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학기는 필수 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2학기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학기별로 4 과목 정도를 듣게 됩니다. 수강 신청은 발부된 아이디로 대학교 포털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대부분 별 무리 없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기 과목은 조기에 수강인원이 다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평가를 위해 과목당 2~3개 정도의 과제가 있고 특히 학기말에는 3,000~6,000 단어 분량의 essay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시험을 본 경우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평가 방식은 전공마다 상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전공한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Social science이기 때문에 암기 형태의 학습 보다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리즈대학교의 경제, 경영, 공학 등의 과목은 에세이 보다는 시험을 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리즈 대학교는 학기마다 평가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는 학업 부담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유학을 갈던 친구들 중 일부는 2학기를 마치고 논문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2학기의 내용을 한 번에 평가받는 식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기도 했는데, 이 방식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학업 내용이 방대할뿐만 아니라, 컨디션 조절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학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Distinction, 60점 이상인 경우는 Merit, 50점 이상이면 Pass에 해당됩니다. 50점 미만은 Fail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참고하면, 보통 60점 초중반 정도가 과목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을 받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기까지 논문 작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과목 Fail인 경우는 재시험을 봐야 하며, 2과목 이상 Fail인 경우 해당 년도 졸업 불가), 5월부터는 논문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 주제를 확정하고, 논문의 목차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8월말까지 12,000 단어로 구성된 Dissertation을 제출해야 하는데, 리즈대학교의 경우 논문 제출 전까지 담당 교수님과 최소 3번 이상의 진행 경과 체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문 주제인데, 저의 경우는 영국에 파견되기 전부터 연구 주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Concept Note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연구 주제가 교수님의 학문적 관심사에 따라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상 논문 작성은 1학기때부터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연구 주제와 관련된 참고 문헌 (References)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관련 연구 동향과 참고할 자료를 취합해 두어야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논문 작성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배경 이론을 파악하는 데만 1~2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찾아 두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대학의 경우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Academic integrity입니다. 특히, 표

절 (Plagiarism)은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허가없이 훔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표절이 발각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학교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표절이 적발될 경우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도 안내 받습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KDI School에서도 일부 수업에 적용) 리즈대학교도 Turn it in이라는 표절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로 표시된 결과가 교수님께 함께 제출됩니다. 특히 일상적 표현이 아닌, 복잡한 학술적 표현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 각각의 문장은 이미 어떤 연구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이 표시될 정도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과거의 연구를 그대로 가져다 제출하려는 순간적 유혹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제출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절대로 표절은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이 늦어진 사유가 합당하면 제출 시기를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의 제출 연기 사유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영국 여학생은 감기에 걸려 작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온 남학생은 과제가 너무 단기간에 몰려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두 명의 요청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세이 작성이 늦어질 경우 솔직하게 사유를 제시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연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논문 작성을 마무리하면 proof reading이라고 해서, 오탈자는 없는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반복해서 읽어보는 과정이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작성된 논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는 방식도 좋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의 논문을 검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영어 editing만 해주는 전문가를 찾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DI School에서의 editing center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는 한국으로 귀국할 시기가 되는데, 11월 정도가 되면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논문 심사는 2명의 교수님 (지도교수 포함)이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외부 검토 위원이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논문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면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졸업식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제 경우 졸업식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접 참석은 어렵기 때문에 졸업장을 한국으로 발송해줄 것을 학교측에 요청하였습니다.

3. 가족 생활

리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역시 사람들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첫번째는 리즈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리즈 한글학교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즈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숫자가 적다 보니, 더욱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리즈 한글학교는 토요일 아침마다 유학생 가족들과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아이들이 모여 함께 한글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2시간 동안 학부모들은 커피 한 잔 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 찾아오는 외국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한글학교가 끝나면 시간이 되는 가족들과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공원에 놀러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시간은 아직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1년만 살다 가는 경우는 미안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TV, 유모차, 아이들 책 등 한국에서 가져오기 힘든 물건들부터 소소한 지역 정보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지만 아이들과 가기 좋은 장소, 괜찮은 식당, 행사 정보까지 알려 주

셔서 초기 정착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적적할 수 있는 아내는 한글학교에서 만난 분들과 만나서 재래시장에도 가고, 같이 차도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 날 저희 집에 한글학교 분들을 초대해서, 이불, 그릇, 책상, 카펫, 된장, 고추장 등 마지막 하나의 물건까지 다시 다 나눠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두번째 인연은 가족 기숙사에서 이웃들이었습니다. 가족 기숙사 이웃들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기숙사 내의 놀이 공간과 잔디밭에서 서로 잘 어울렸고,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방문해서 간식도 같이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집에는 아이들을 위한 보드 게임, 자석 장난감, 그네 등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수시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아내는 조금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냥 문을 열어 놨었는데, 이럴 때면 옆 집에 사는 남자 아이가 소리 없이 집에 들어와 아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웃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주말이나 방과 후에는 수시로 친구집에 놀러갔기 때문에 서로 다 이해하고 챙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웃들 사이에도 서로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등 따뜻한 분위기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 중 가장 잊지 못 할 추억은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 중에 느꼈던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기숙사에는 중동에서 온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라마단 기간 중의 생활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낮 동안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 라마단은 5월이었는데, 이 때의 영국은 오후 9시가 넘어야 해가 지기 때문에 이웃들은 자신의 고향보다 더 긴 금식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라마단 기간은 종교적인 수행의 의미도 있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기간이기도 해서 10시경에는 이슬람 전통 음식을 우리집에 자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웃들이 음식을 선물했기 때문에 다 먹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아내가 유난히 음식을 자주 베푸는 이웃집에 당신의 마음을 이해했으니 이제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에도 밤마다 음식을 선물하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평소와는 달리 새벽이 될 때까지 밖에서 놀았는데, 꽤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 놀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도 라마단 기간 중 낮에 요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냄새가 덜 한 재료를 쓰고 고기류는 피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배려했습니다.

4. 가족 여행 및 기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추억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특히 리즈와 같은 지방도시에 오시게 되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영국의 겨울은 거의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리고, 낮 시간도 짧아 (오후 3~4시경 일몰) 자칫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국인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로 여행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아이들 방학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동차를 싣고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가기도 했고,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먼 국가는 저가항공을 이용해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초등학교 (Primary School)은 우리나라와 같이 1달 이상을 연속해서 쉬는 방학 보다는 짧게 쉬는 방학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부활절 (Easter) 방학, 학기 중 (Half-Term) 방학, 크리스

마스 방학 등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여름방학은 1달 이상 되지만, 나머지는 다 1~2주 정도입니다. 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한국에서는 가기 힘든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유학 기간 중 큰 활력소가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아이들 학교 방학시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비행기 값과 숙소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조금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요령은 미리 항공권과 숙소를 예매해두는 것입니다. 리즈에는 가까운 리즈브래드포드 공항이 있고,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는 맨체스터 공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맨체스터 공항이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저가항공을 이용할 경우 맨체스터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권 예약은 예약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인의 추천을 받아 Skyscanner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는데, 월 별로 비행기 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공항 중 입출국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한 노선을 알아보고, 동선을 이에 맞춰서 짜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나 Bank holiday 등이 있는 짧은 연휴 기간에는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하여 런던, 에딘버러, 바스, 요크, 코츠월드 등 유명한 도시나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즈는 영국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즈가 속해 있는 West Yorkshire 지역은 자연 경관이 우수한 요크셔데일스 국립공원와 피크 디스트릿 국립공원 등에 인접해 있어,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정도의 가벼운 여행을 즐기기도 좋은 여건입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고 리즈 시내의 공원에만 가도 드넓은 잔디밭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5. 2년의 교육을 마치며

공무원으로 특이할 정도로 현안 부서에만 근무했던 저로서 지난 2년의 세월이 재충전의 시간이자 자기 계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KDI School에 왔을 때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러한 훈련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는 외국 생활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그나마 KDI School에서 연습을 하고 간 덕분에 큰 무리없이 학교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론들을 그간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시간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KDI School에서는 제가 그동안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경제학의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영국에서의 1년은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공부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KDI School과 영국에서 만난 많은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좋은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가족들에게도 남편과 아빠로서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KDI School과 외국 대학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일 때는 너무나 당연해서 몰랐던 배움의 기쁨과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 새로운 곳을 가보는 설렘을 다시 느끼시고, 인생에서 다시 없을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름다운 기억과 좋은 기운을 가지고 부처에 복귀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 업무, 인생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